영생은 강자(强者)만의 소유물

자신을 이기지 못하면 결코 영생 쟁취하지 못해

오늘날 6천 년 만에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내려와서 지금 모든 인간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틀림없는 구세주요, 틀림없는 하나님의 신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줬습니다.

공산주의를 멸망시킨 구세주

이 사람이 말로만 세계 공산주의를 없앤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이 떨어지면서 세계 공산주의가 없어졌습니다. 이 지구 땅위에 공산주의자가 40억 명이었었는데 이 40억 명 속에 있는 공산주의 이념을 구세주가 분신으로 날아가서 공산주의자 속에 쏘옥 들어가 이 공산주의 이념을 뿌리째 뽑아서 제거했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없어졌다고 말해야 이게 이치가 맞는 말이죠? 공산주의자의 이념이요, 공산주의자가 가지고 있는 사상이기 때문에 그 이념을 완전히 뿌리째 뽑아서 제거하기 전에는 공산주의 사상이 없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공산주의 이념을 뿌리째 뽑아서 제거해버리니까 공산주의가 멸망당한 것입니다.

이 사람이 공산주의를 없앤다고 하는 말을 할 때에 3분지 1이상의 교인들이 벌떡 일어나서 나가버렸습니다. 어떻게 제까짓 게 없애버리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예배 보는 중에 벌떡 일어서서 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공산주의가 90년대에 없어지니까 그 사람들이 다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조희성이라는 사람이 공산주의를 없앤다고 한 말이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공산주의가 없어지는 걸 보니까 조희성이라는 사람이 공산주의를 없앤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되어 다시 제단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태풍과 장마 막는 전지전능한 구세주

이제 공산주의만 없앤 게 아니고 우리나라로 태풍이 못 불어오게 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해마다 오는 여름 장맛비를 못 오게 한다. 그랬죠? 그리고 또한 우리나라에 계속해서 풍년들게 한다. 그랬죠? 여러분들, 말이 그렇지 해마다 25번씩 불어오는 그 태풍을 못 불어 오게 한다는 말이 그게 사실로 들려요? 이제 와서는 사실로 들릴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25년간 계속해서 태풍 못 불어 오게 하니까 사실로 이제 와서는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 들었을 때에는 사실로 들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해마다 여름장마를 못 지게 한다고 또 그랬죠? 계속해서 여름장마가 해마다 지는데 여름장마가 오지 못하게 한다는 말이 그게 믿어져요? 21년간 여름장마가 안 지고 21년간 태풍이 못 불어 오게 하고 공산주의를 없애버리고 말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지금은 팥을 가지고 메주 쑨다고 그래도 믿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풍운조화를 마음대로 하고 이제 또한 우주를 우지좌지 마음대로 움직이는 걸 볼 때에 진짜 구세주가 틀림이 없는 거죠? 진짜 구세주라는 건 풍운조화를 마음대로 하는 자요, 진짜 구세주라는 건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마음대로 우주를 움직이는 자가 바로 구세주인 것입니다. 그런고로 구세주는 전지전능자인 것입니다.

영생을 주는 구세주

그래서 인간 속에 있는 선악과인 나라는 의식을 완전히 뿌리째 뽑아서 제거한 다음에 마귀 옥에 갇혀 있었던 하나님의 영이 나라는 의식에 앉게 해서 바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을 만들 수 있는 능력 있는 자가 구세주인 거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죽지 않는 하나님을 만드는 능력이 구세주 밖에는 그 누구도 그러한 능력을 가질

구세주 조희성님

수가 없는 거죠?

그런고로 영생을 줘야 구세주이지, 영생을 못 주면 구세주가 아닌고로 영생이라는 건 바로 하나님 안에나 영생이 있는 거지, 사람 속에는 영생이 없는 거죠?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마귀의 종 하나님인고로 마귀 종 하나님은 영생할 수가 없는 거죠? 결국은 다 마귀 종 하나님은 죽게 되어 있죠?

마귀 죽이는 명약 감로 이슬성신

그런고로 마귀가 나라는 주체의식이라는 사실도 이 세상 종교들이 모르죠? 이 세상 종교들은 바로 나라는 의식이 마귀요, 마귀의 종 하나님이 인간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을 보아도 분명히 나라는 의식이 마귀요, 인간의 몸속에는 생명인 하나님의 신이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마귀 종 하나님입니다. 그런고로 마귀 종 하나님이 인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어디서 들어봤어요? 그걸 아는 사람이 없어요. 구세주밖에는 모르는 거야. 구세주만 그것을 알 수밖에 없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신으로서 마귀와 더불어 6천 년간을 싸우며 마귀의 공격을 6천 년간을 피해 다니다가 감추었던 만나인 이슬성신을 개발함으로써 그 개발한 이슬성신을 가지고 인간의 몸을 입고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세상에 나타나서 감로이슬성신을 내리고 있지만 이 세상 사람들이 '야~ 이상하다!' 할 정도로 생각만 했지, 그것이 영생을 주는 이제 삼신산의 불로초라는 걸 몰랐습니다. 격암유록에 감로가 바로 삼신산의 불로초라고 쓰여 있죠? 감로이슬성신이 곧 사망의 신을 죽이는 약입니다. 그걸 먹으면 사망의 신이 죽습니다. 그걸 먹으면 마귀가 죽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감로이슬성신을 내리면 바로 사람 속의 마귀 신이 죽는고로 사람들이 사람의 탈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부 마귀를 이긴 하나님이 되는고로, 사망을 이긴 하나님이 되는고로 영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보통 하나님이 아니고 승리의 하나님인고로 강한 하나님이 되어서 영원무궁토록 영생하게 되어 있는 것이라고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일찍이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강자에게 영생이 있지, 약자에게는 영생이 없다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이기고 마귀를 죽이는 능력이 있는 승리의 하나님의 신이 영생하는 거지, 마귀에게 지는 하나님의 신은 영생할 수가 없다고 그랬죠? 기독교에서 이러한 구원론을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만 끼고 다녔지, 성경 말씀의 진의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고로 오늘날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우리 승리제단인 것입니다.

사람 눈에는 안 보이는 이슬성신

인간 속에는 하나님의 신과 마귀 신이 있는데, 주체영으로 되어 있는 마귀 신을 죽여서 없애버리면 하나님 신밖에는 안 남는 거죠? 그러면 인간들이 전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귀를 죽이는 독약을 개발한 거예요. 마귀를 죽이는 그 독약이 바로 감로이슬성신이에요. 그 감로이슬성신을 예배 볼 적마다 항상 구세주가 감로이슬성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감로이슬성신이 사람 털구멍으로 들어가서 중생들을 전부 성불시킨다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중생들 속에 있는 마귀 신을 완전히 죽여서 없애버려야 중생들이 성불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 오늘날 이 승리제단에서 이 사람이 단에 설 적마다 감로이슬성신이 내려요, 안 내려요? 폭포수처럼 내리고 있는데,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사진을 찍으면 찍혀 나옵니다. 감로를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지, 감로를 안 받았으면 옛날 못된 성질, 못된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악한 영을 제거하는 이슬성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고로 감로이슬성신을 내리는 자가 구세주요, 생미륵불이요, 정도령이라는 사실이 격암유록, 성경, 불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성경을 보면서도 기독교 사람들은 왜 모를까요? 마귀한테 씌우면 마귀 안경을 써요. 시커먼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시커멓게 보입니다. 쓴 안경에 따라서 보이는 각도가 달라요. 그와 같이 마귀의 안경을 쓴고로 성경말씀이 마귀 말씀으로 보이는고로 그걸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질 않아요. 암만 같은 성경을 보아도 성경은 같은 성경인데 보는 사람들이 쓴 안경에 따라서 그 성경 말씀이 하얗게도 보이고, 까맣게도 보이고, 파랗게도 보이고 그러는 거예요.*

2001년 12월 17일 말씀 중에서

[연재] 不老不死 어떻게 가능한가

피의 작용

심령현상의 과학적 기초 원리2

오라(생체자기장)는 사람의 생각에 따라 크기 색상이 달라 보여

지구에는 지구 자기장이라는 것이 있다. 지구 자기장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주 공간에는 우주선이라는 강력한 에너지가 있는데 이 에너지는 끊임없이 지구로 날아온다. 이 우주선을 막아서 지구의 생명체들을 보호해 주는 것이 바로 지구 자기장이다.

이 지구 자기장에 관하여 흥미로운 사실이 있다. 오래 전에는 아주 먼 곳에 짧은 편지를 보내거나 쪽지를 보낼 때 비둘기를 사용했다. 비둘기는 모르는 곳에서도 집을 찾거나 길을 찾는 데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비둘기가 가진 뛰어난 방향 감각과 집을 찾는 능력은 다름 아닌 자기장을 느끼는 감각의 결과라는 사실이 1979년에 밝혀졌다. 비둘기의 머리뼈와 뇌 사이에는 가로 2mm, 세로 1mm 크기의 자석이 있다. 이 자석이 지구 자기장과 반응하여 방향을 잡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한다.

인간도 인간의 생체를 덮고 있는 일종의 전계(電界)와 자계(磁界)로 이루어진 생물학적 대역(生物學的 帶域)이 오라(aura)다. 이것에 의해 인간의 신체로부터 약3.5미터 떨어져서 전혀 신체와 접촉하지 않고도 에너지의 강도를 검출할 수 있는 장치가 이미 나와 있다. 우리가 만약 기(氣,생체에너지)를 느끼게 된다면 육안으로 보이는 나의 육체보다도 훨씬 큰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신체 주위의 역동적인 전자기장(오라)은 사람의 생명력에 따라 그 강도가 크게 달라지고, 색깔 또한 그 사람의 생각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오늘날에는 생체전계(生體電界)를 검출하는 장치가 나와서 사람이 먼 곳으로부터 접근해 오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이 어떤 심리상태(기분氣分)에 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고 한다. 생체자기 측정기술은 자장의 공간적인 분포를 인체 밖에서 다채널 SQUID 센서로 측정하여 시간에 따른 활동전류의 정보(위치, 방향 및 세기변화 등)를 동적으로 표시하는 기술이다. 인체내부의 전기적 활동에 의해 자장(磁場)이 발생되는데 인체는 자기장에 대해 투명하기 때문에 자장 발생원으로부터 공간적으로 떨어진 위치에서 측정이 가능하다. 한편 인체 내의 활동전류에 의한 전압을 인체 표면에서 측정한 것이 뇌파 또는 심전도이다.

생각으로 방출된 에너지 공기 속에 녹음되어 있어
그 사념에너지는 우주만물에 서로 영향 미쳐
이것이 심령현상 설명해주는 과학적 원리

위와 같은 사실에 생체에너지는 마음에 의해 지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신에너지는 그보다 하위 차원인 생체에너지를 지배할 수 있다. 실제 정신력이 강한 초능력자들은 사념으로 에너지를 집중시켜 물질화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영매(靈媒)가 엑토플라즘(영적에너지가 물질적 매질을 통해 구체화된 것)을 낸다든가, 선도 수련자가 양신(養神)을 만든다든가 하는 경우가 모두 정신력으로써 에너지를 물질화시키는 행위인 것이다. 생체에너지가 생각에 따라 물질화된다는 사실은 '유령출현', '염사(念寫)' 등 다양한 심령현상을 뒷바침해 줄 것이다.

우주공간 속에는 사념파(思念波)들이 자기를 띠고 녹음되어

한편, 인간이 만든 무수한 전자파의 에너지 파동은 우주공간으로 퍼져 나가고 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면 우리의 두뇌는 주기적인 전기 흐름을 발생시키며, 이 흐름의 변화가 자연히 우주공간으로 퍼져 나간다. 이러한 사념파(思念波)는 마치 방송국의 전파가 공간을 떠돌아다니는 것과 같이 우주공간을 끊임없이 떠돌아다닐 것이다. 즉 테이프 레코더의 자기 테이프 음성이 자기적으로 기억되어 언제나 남아 있는 것처럼, 우주공간 속에는 사념파들이 자기를 띠고 녹음되어 있을 것이다. 이것이 이른바 아카샤(Aksha)기록이라고 한다. 이 기록들은 '아카샤'에 새겨져 있다고 전해지는데, 별빛인 아카샤를 강신술사들은 인간의 감각을 초월한 액상 에테르로 묘사한다. 아카샤 기록은 선택된 특정 개인, 예를 들면 교령회를 이끄는 강신술사 같은 개인만이 볼 수 있다고 한다. 아카샤는 인간의 의지 · 사고 · 감정 및 상상의 파장을 전달하며, 비의(秘儀) 능력의 저장소, 즉 모든 것을 연결시켜 예언과 통찰을 가능하게 하는 무의식의 대양이라고 한다.

아카샤의 기록(Akashic Record)은 '공간의 기록(Space Record)'이란 뜻으로서, 우주 속의 모든 것들의 움직임이 우주 공간(akasha) 자체에 기록이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살아 있는 모든 것들이라는 것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고, 원자는 핵과 전자로 이루어져서 둘은 각각 양성과 음성의 전하를 띤다.

따라서 원자 주위에는 미약하나마 핵과 전자에 의한 전기장이 형성되고, 전자나 핵이 활동하거나 원자가 움직이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전자기파가 주위로 퍼져나간다. 이 공간으로 퍼져 나가는 전자기파는 곧 자신의 움직임을 공간에 전자기파의 형태로 기록한 셈이다. 급기야 그러한 기록은 다른 생명체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우주의 모든 존재들은 무수한 종류의 파동을 통해 서로 빈틈없이 연결되어 있다. 개개인의 사념의 파장들은 마치 전파들의 파장이 서로 다르듯이 각각 고유의 파장으로 다르게 존재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우주에는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무수한 파동들이 기록되어 난무하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모든 사람들의 사념들은 각기 다른 파장으로 우주공간에 빠짐없이 기록된다. 이걸로 보아 신비한 여러 심령현상은 이러한 과학적 원리를 바탕으로 설명이 가능하게 된다.*

김주호 기자